

하루를 시작하며



정 한 식
전 초등학교 교장·수필가

본지 칼럼 '감염병 예방, 환기 중요성 이론적 근거 소고' (2020년 4월 8일) 및 '감염병 예방, 환기 중요성 사실적 근거 소고' (2020년 6월 17일)에서 실내환기 중요성 입증은 논의한 적이 있다. 본 제하에서는 이와 연계해 이성적·감각적 사유에 의한 근거 검토로 실내환기 중요성 입증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진리 탐구의 원리로서 소크라테스(플라톤)는 사유를, 이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감각을 중시해 인식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감염병, 환기 중요성 이성·감각적 근거 소고

원리는 상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인류의 보다 나은(좋은·행복한) 삶의 진리 탐구를 위해 상호 병행 또는 병합한 '이성적·감각적 사유'로 독립 설정 적용해 보는 접근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실내/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 측정으로 공기질과 이에 따른 환기 시점을 알려주는 IoT공기질알리미(2017), pm2.5 미세먼지 자동측정기(2019 국산화 성공)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미개발된 상태에서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치료제·백신 및 첨단 기기 개발과 병행해 환기 잘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특히 이성적·감각적 사유에 의해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민감하게

판별, 환기시점을 감지하는 민감성 발취가 요구된다.

이성적·감각적 사유의 감각적 사유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서 여기서는 시각적 사유와 후각적 사유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양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각각 봄으로써, 냄새 맡음으로써 느끼고 사유(생각)를 창출해 그에 대한 사리 분별이나 평가하는 데 고유한 능력이 있다. 즉, 후자를 통해 밀폐된 실내에 입실했을 때 사람들의 호흡을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각종 유해물질이 밀폐된 상태로 장시간 지나다니면서 부패하고 오염돼 발생될 수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등으로 생체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해되는 현상을 민감함으로써 밀폐된 실내공기가 실외공기보다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판별할 수 있다.

또 전자를 통해서도 밀폐된 실내에 입실했을 때 실내공기의 맑고 흐림, 특히 천진한 어린이들의 눈동자, 표정, 행동 모습에서 졸리는 표정인가 깨어 있는 맑은 표정인가, 조용한 모습인가 명랑한 모습인가 등을 관찰해 이들로부터 졸리는 표정, 조용한 모습, 호흡곤란 등의 현상을 민감함으로써 밀폐된 실내공기가 실외공기보다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판별할 수 있다. 이는 곧 실내 환기 중요성 입증 및 밀폐된 실내공기에 대한 민감성 습관화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입실 즉시 실내 공기가 오염된 상태임을 민감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더라도 양방향의 창문을 열고 환기설비를 가동해 민첩하게 환기하거나 대피해야 하며, 그곳에 일시 머물러야 할 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오염된 공기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사설

지역감염 현실화, 청정제주가 흔들린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신규 확진자가 단순히 늘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게스트하우스와 온천을 비롯해 도내 공기집과 행정기관까지 원지역 한 게스트하우스 폐쇄되고 있다. 이젠 제주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게스트하우스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지역 한 게스트하우스 관련 확진자가 지난달 31일 기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직원을 통해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직원도 최근 제주 여행 때 문제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귀포시 안덕지역 산방산 탐산안전발 추가 확진이 이어지면서 지역감염 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온천을 방문

했다가 검사를 받은 A씨가 이날 제주 46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로써 산방산탐산온천 관련 확진자는 29·33번 목회자 부부를 포함해 40·42·44·46번 등 6명도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5일만에 신규 확진자가 11명이나 발생한 겁니다.

제주지역 감염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큰 일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염 경로는 단순했습니다. 해외나 대구 등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이 감염되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감염을 초기에 완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나 온천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도민들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병 청정제주'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점점 커지는 태풍 마이삭 '방심은 금물'

제9호 태풍 '마이삭'이 계속 세력을 키우며 제주로 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달 27일 8호 태풍 '바비'에 이어 일주일 새 두 번째로 초강력 태풍이 제주에 불어 닥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지난 태풍 '바비'가 초강력 태풍으로 예보됐다가 예상보다 낮은 강풍에 적은 피해를 냈다고 태풍 '마이삭'을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31일 오후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중심기압 950hPa, 중심최대풍속 43%, 강풍반경 380km에 강도 '강'으로 세력을 키워 북상중입니다. 이 태풍은 1일 새벽부터 '매우 강'으로 세력을 키워 제주를 지나는 2일 낮까지 강도 '매우 강'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심기압 945hPa, 중심최대풍속 45%, 강풍반경 380km에 이릅니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섬의 특성상 매년 맞는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을 때입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제주도가 태풍의 왼쪽에 놓여 위험반원을 벗어나지만 워낙 넓은 강풍반경에다 집중호우를 동반하고 있어 제주지역 태풍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풍이 오기전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와 함께 태풍 지난후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활동에도 대비해야겠습니다. 행정·소방·지역민 모두가 저지대 침수지역, 공사장 등 재해 우려지역, 비닐하우스·선박·광물 등 입간판 등의 강풍피해 대상물, 각 가정·동네별 배수구 등 점검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태풍피해 발생시 빠른 복구활동을 위한 조기 피해 집계와 체계적인 복구·지원 준비도 사전에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사회 구성원 모두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섬의 특성상 매년 맞는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을 때입니다.

열린마당

양성평등이 일상으로 스며들도록



김 금 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장

상황을 감안해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소규모로 유공자 표창수여식만 9월 4일 개최할 예정이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며 그 절반 또한 남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육아, 가사, 돌봄, 노동, 성역할에서 사회적 혐의나 인식이 느끼게 변화되고 있어 안타깝지만 하다. 여성, 남성 모두 성별을 바탕으로 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가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서 우리사회에 제대로 조화롭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한번 더 되새기며 널리 알리는 역할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사회 전분야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일과 가정이라는 일상 속에 양성평등의 이념이 스며들어야 진정한 평등사회를 이룰 수 있고, 모두가 노력해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양성평등이 일상으로 스며들어야 자연스러운 우리 미래세대들이 살아 가는 세상도 함께 상상해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의회 고심

본회의 풍경 변화 전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이상 행사·회의·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9월 임시회를 앞둔 제주도의회가 방역 계획 마련에 고심.

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면회의 시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참석 인원 최소화가 불가피한 상황.

이에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장 집행부 배석 등 출입 인원 최소화 방안을 비롯해 칸막이 설치와 의결 시스템 조정 방안 마련에 부심.

오은지기자

"현혈, 감염 걱정 마세요"

○...제주지역 해양경찰들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현혈량이 급격하게 줄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 현혈에 동참해 눈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제67회 해양경찰의 날의 의미를 더하고,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현혈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일 청사 주차장에서 단계 현혈을 실시.

이날 현혈에 참여한 한 해양경찰관은 "현혈 전 감염병 예방 수칙이 철저히 지켜졌기 때문에 감염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현혈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언급. 이상민기자

문화예술상 수상자 첫 배출

○...지난달 31일 실시된 13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제주지역 문화예술상 수상자를 처음 배출.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제주도와 공동주최하면서 2013년부터 제주도가 예산을 배정해왔고 올해도 2억원을 투입.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예술상 수상자가 없어서 도내 문화회관 3곳에 추천을 요청했고 문예회관인상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후보 추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힌. 진선희기자

부 고

양세웅(前 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 아버지 제주양공 창화(국가유공자, 향년 91세)께서 서기 2020년 8월 31일 19시 1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2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3일(목요일) 오전 11시
▶발인장소: 한림 정남장례식장 2층 특실
▶장 지: 금악리 선영

부 인 장 임 용

아 들 양 세 웅 머느리 강 명 인
세 우 김 순 자
세 준 김 영 속
딸 양 정 희 사 위 김 언 중
정 열 (故) 고 재 희

※ 연락처 : 양세웅 010-9458-3653
양세우 010-8522-4483
양세준 010-3694-7150
양정희 010-8825-3136
양정열 010-8687-9899
김언중 010-9099-7136

자본감소 및 주권채출 공고

당 회사는 2020년 8월 31일 주주총회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350,000,000원 중 금34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금1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편으로써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34,000주에 대하여 소유주의 비율로 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1,000주로 할 것을 결의하였음.

2020년 9월 2일
상호: 주식회사 제주가자(jejugaja)
본점: 제주시 중앙로 261-1, 201호 (이도이동, 티에스주상복합림아파트)
사내이사 이민숙

별초 전문별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곡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9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노지감람: 계약병, 검은점무늬병, 불룩총채벌레 등 병해충 방제
○ 작파량이 많은 나무 유주 소과, 중점점파(병해충, 풍상과) 등 열매숙기
○ 부비 검강 및 작파 촉진 감습제 살포
- 수용성감습제: 8월 중순부터 작파 전까지 10일 간격 2-3회
- 불용성감습제: 작파 초기부터 10일 간격 1-2회
□ 만감류: 총채벌레, 굽음에 예결 후 발생초기 방제
○ 여름철 하우스 내 온도 상승 최대한 억제, 주이간 지연온도 관리
○ 고온기 약해 발생 주의, 이른 아침 농약살포 3종 이상 혼용 금지
○ 수용성 감습제 8월 중순부터 20-30일 간격 3회 살포
□ 키위: 점무늬병, 세균성점무늬병, 여름계양병 등 병해충 방제
○ 태풍 대비 노지재배는 방풍수 등 정비, 덕 시설 고정, 배수로 정비
시설재배는 와이어, 나사 등 고정, 환풍기, 개폐기 등 작동 점검
□ 당근: 속움작업
○ 파종 후 30-40일(본잎 2-3매) 1회, 40-50일(본잎 6-7매) 2회 실시
□ 양배추: 작기 정식
○ 정식시기: 양배추, 브로콜리(8월 하순-9월 중순), 콜라비(9월 중하순)
○ 밀가루: 톨비 3,000, 석회고토 100-150, 요소 20, 용성인비 40,
염화기리 12kg/10a \* 톨비 및 석회고토는 파종 15일 전 살포
○ 파종이 완료된 포장은 발아 후 충분한 물주기
□ 마늘: 파종시기 8월 중순-9월 하순
○ 종구소독: 종구 20kg을 비노닐-티람액상수화제 500배액(물 20L에 약제 40g)에 1시간 담근 후 그늘에 건조
○ 밀가루: 톨비 3,000, 석회고토 100-150, 요소 20, 용성인비 40, 염화기리 12kg/10a
\* 톨비 및 석회고토는 파종 15일 전 살포
□ 가물감자: 종사소요량 200kg/10a
○ 파종시기: 8월 중순-9월 상순
\* 고온다습 조건이므로 절단하지 않은 통감자 파종이 좋음
□ 월동무: 파종시기 8월 하순-9월 하순
○ 밀가루: 완숙면비 1,000, 소석회 75, 요소 13, 용성인비 60, 염화기리 9(kg/10a)
\* 연내 수확용 품종은 9월 상순까지 파종 완료해야 함
□ 콩: 생육 불량 또는 파손된 포장 웃거름 요소 9kg/10a 살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T.760-7553